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진영 대결 끝내고, 상식과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자

9월 28일(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3일(목) 개천절 공휴일엔 '문(文) 정권 심판과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인파로 가득차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틀 후 10월 5일(토)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 10월 9일(수) 한글날 공휴일엔 '문재인 하야(下野)와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 10월 12일(토)에는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이런 희한한 일은 우리 5천년 역사에서도 처음이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내 편, 네 편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등과 대결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가 뒤범벅된 혼돈의 시대다. 어찌면 광기(狂氣)가 판치는 광풍(狂風), 광란(狂亂)의 시대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잃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善) 네 편은 무조건 잘못(惡)되었다는 선악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논리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정의가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조국(曹國) 법무부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가족도, 친구들도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있다. 10월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둘러본 어느 진보 신문 기사는 '정치 실종'과 '가득찬 증오'를 보았다고 쓰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광장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통상적인 일이다.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달 전, 검찰 개혁의 책임자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규탄하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광화문 집회 측과 서초동 집회 측은 서로 자기를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상대방 집회는 '동원된 집회', '관제(官製) 집회'라고 폄해(貶毀)하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구속 시키고 전 정권의 대한 적폐(積弊) 청산(淸算)을 진두지휘했다. 그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모두가 박수쳤다. 지금보다도 더한 피의(被疑) 사실 공표도,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책임자라고 칭찬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

부인과 동생, 아들과 딸, 5촌 조카가 구속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조사 받고, 자신도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보기 드문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개혁 동력도 유지된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여 앞서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윤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 여권과 서초동 집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조국 수사 저지 또는 방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 수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式) 국면 전환이나 시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정권의 존립 정당성에 불신과 상처는 남겠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조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두 동강 난 난국(亂局) 수습(收拾)의 시작이다.

社說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해야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통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니 기대가 크다.

한국전력은 광주 광산구, SK텔레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1인가구의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통화,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在宅)·부채지 분석된 전력사용량 패턴을 기반으로 비정상상태를 감지해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급상황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한전과 SK텔레콤은 전력사용량, 스마트폰 통화 및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비정상상태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서비스 참여를 희망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오는 11월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해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등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한전의 이번 사업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우리 실정을 제대로 간파한 시책임에 틀림없다.

특히 농어촌 홀로사는 노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점검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한전의 이번 사업은 전력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한전은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체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감 미리 예방해야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은 상부 호흡기계(코, 목)나 하부 호흡기계(폐)를 침범하며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중요하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즉,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병이다.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형 세가지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다.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독감을 감기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독감이 고열이 갑자기 생기고, 전신증상 심한 피로감이 오래간다는 점에서 감기와 다르다. 감기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아픈 증상이 대부분 임니다.

독감은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있는데 증상 발생 48시간 안에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문정수 / 호순119안전센터 소방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